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2. 6.(화) 배포 즉시

늘어나는 외국인력에 발맞추어 정부의 체류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2.6.(화) 한겨레, “정부가 직접 챙긴다더니...외국인지원센터 결국 민간위탁”

2. 설명내용

□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위한 **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**해 나가겠다는 것은 **정부의 일관된 입장임**

□ 우선, 정부가 외국인력에 대한 상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 **다국어 상담원 62명의 채용**과 **주말상담을 운영**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음

□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기 위하여 **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한국어 교육을 수강**할 수 있도록 **교육장소도 41개소로 확대**하였음

* 한국어교육 운영: (기존) 전국 9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→ (변경) 41개 전문 교육기관

□ 또한, 이번 ‘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’ 공모에는 **22개 지자체에서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**을 보였으며, 이 중, **사업계획이 우수한 9개 지자체**를 선정*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
* 22개 지자체 신청 → 서면·발표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9개 지자체 선정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오기환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이동현 (044-202-7149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